

[특집]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
한 상 인

[서울 대신학교 인성양성 신부]

-
1. 서론
 2. 사제 성소를 위한 통합적 양성의 중요성
 - 2.1. 성소와 사제 양성
 - 2.2.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통합적 양성
 - 2.3. 통합적 양성의 목적
 - 2.4.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
 - 2.5.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관계
 3. 초기 양성에서의 예비 과정
 - 3.1. 예비 과정의 목적
 - 3.2. 예비 과정의 방향과 형태
 4. 예비 과정으로서의 소신학교
 - 4.1. 소신학교의 양성과 목적
 - 4.2. 소신학교의 양성의 문제점
 - 4.3. 소신학교의 양성의 도전과 전망
 - 4.4.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예비 신학생 모임
 5.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한 제안
 - 5.1.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의 역할
 - 5.2.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본당의 역할
 - 5.3.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6. 결론
-

1. 서론

21세기 들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최근 들어 교세가 그 이전 시기보다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꾸준히 증가를 계속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세의 증가에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비해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2년 주교회의의 한국 천주교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전체의 신학생 수는 2019년 1,209명에서 2022년 1,030명으로 줄었고 입학생 수도 145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교구 신학생 수도 2019년부터는 1,000명 이하로 줄었고, 2022년 현재 821명이다.¹⁾ 그중에서 특히 교구 신학생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교구 신학생은 10년 전인 2011년 1,317명보다 약 30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로 인해 인성과 영성을 돌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을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곳은 가정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소자들의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구나 본당의 경우도 사제 성소를 증진시키는 사목보다는 다른 유형의 사목적 돌봄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과거보다 인성과 영성에 있어서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학생들이 사제직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준다고 하여, 적절한 식별 없이, 특히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에 대한 준비 없이 입학을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이다.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사제의 중책을 맡아 사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역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모든 선발과 시험에서, 비록 사제가 부족하여 안타깝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일꾼들이 없도록 버려두실 리 없으므로, 언제나 확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합당한

1) 참조: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 통계 2022 분석보고서」, 4쪽.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부적합한 사람들은 제때에 다른 임무를 찾아가도록 어버이로서 지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성소를 의식하여 기꺼이 평신도 사도직을 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²⁾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제 성소를 위한 인성, 영성 양성을 위한 통합적인 준비로서 예비 단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성소의 선물」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예비 과정은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필수적인 교육 단계이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영성 생활을 위한 공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인간적 성장을 위한 자기 인식을 더 키워나가게 하는 것이다.³⁾

그리고 예비 과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소신학교와 소신학교의 폐교 이후 그 대안으로서 현재까지도 시행 중에 있는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가정, 본당 그리고 교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 보도록 하겠다.

2. 사제 성소를 위한 통합적 양성의 중요성

2.1. 성소와 사제 양성

교회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다. 특히 “교구 사제들은 언제나 더 높은 저 성덕을 향하여 매진하고,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봉사하는, 날로 더욱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⁴⁾ 또한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끝까지 사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um Totius*), 6항(이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3)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2항.

제로 나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사제 성소의 역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소의 경우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즉 인간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 사랑 어린 목소리로 응답하는 각 개인의 자유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라고 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소의 두 가지 측면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한 마르코 복음사가의 간결한 문구에서 분명하고도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당신 마음에 두신 이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당신 앞으로 나왔다”(마르 3,1). 한편에는 예수님의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열두 사도의 나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성소—예언자 성소, 사도 성소,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평신도 성소 등—영원한 모범이자 기본 요소입니다.⁵⁾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복음 말씀들은 성소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만남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부르심의 신비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우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가까이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이들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더욱 직접적으로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만났셨다.⁶⁾

따라서 사제 성소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며, 또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과 나누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대화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들려오는 그분 목소리에 내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부르심을 들은 사람만이 할

5)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36항.

6) 참조: 교황청 교육성,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5항.

수 있다. “그래서 ‘따르다’(ἀκολουθέω)는 ‘듣다’, 혹은 ‘알다’(ακουω)와 ‘~하는 사람’(λουθέω)이라는 접미사의 합성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만이 즉시 그분을 따라나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샅꾼이 아니라 착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⁷⁾(요한 10,3-4 참조).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말씀)를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분의 가르침은 물론 그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⁸⁾

2.2.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통합적 양성

직무 사제직을 위한 양성 과정 동안 신학생들은 은총으로 받은 재능과 선물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 통합된 양성을 위해 결합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성령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직무 사제직을 위한 양성 기간은 양성자와 신학생 모두에게 시험, 성숙, 분별의 시기이다.⁹⁾ 따라서 신학생들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타인을 향해 나아가며, 사제직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여 자신을 바쳐 성령과 함께 일하며 온유하고 창의적으로 장단점을 내적으로 통합하도록 요청받는다.¹⁰⁾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양성을 위한 과정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 완성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사제는 머리이시고 목자이시며 종이시고 배필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주교의 협력자로서 사제직과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¹¹⁾

사제가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것은 그 자신의 복음화와 성사와 사목에 대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기 봉헌과 속

7) 방효익, 「교구 사제를 위한 영적 양성의 필요성」, 73쪽.

8)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9)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28항.

10) 「사제 성소의 선물」, 29항.

11) 참조: 「사제품」, 2항;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항.

죄, 즉 사제 직무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진다. 사제 직무의 이러한 질적 차원은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서 표현된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그렇기 때문에 사제직 후보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매일 갈고닦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¹²⁾ “왜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지만 우리들의 참여와 협력 및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¹³⁾

2.3. 통합적 양성의 목적

“사제 양성 과정은 단일한 제자의 길의 연속이다. 이 여정은 세례성사로 시작되어 다른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하여 완성되고, 신학교의 양성 시작부터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며 일생 동안 이어지게 된다.”¹⁴⁾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사제와 신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점차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 양성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양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¹⁵⁾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모든 사제 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기초가 되는 ‘인성 차원’, 사제 직무를 위한 자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성 차원’, 목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가치를 구체화하고 신앙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이성적 도구를 제공하는 ‘지성 차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 있고 유익한 교회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목 차원’이 있다.”¹⁶⁾ 이때 네 영역에

12)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항.

13) L.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1, p.33.

14)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15)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서 추구하는 바는 직무 사제 양성이라는 전체 과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특성을 담고 있는 단계적인 목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¹⁷⁾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이러한 통합된 양성은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사제들은 처음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끈기 있고 세심하게 교육을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빛나야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¹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석을 잘 깎고 다듬는 과정이 바로 양성인 것이다.

따라서 사제 양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던 사제직 지원자가 사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의 삶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와 닮은 사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직무와 성사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 사제 양성 과정의 목적인 것이다.¹⁹⁾

따라서 이러한 양성의 전체 여정은 결코 단일 측면으로 축소되어 다른 측면들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늘 사제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통합된 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또한 각각의 영역들이 결국엔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궁극 목표인 사목적 양성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합된 양성의 목적은 사명에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개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동화시키는 여정이기 때문이다.²¹⁾

16) 「사제 성소의 선물」, 89항

17) Cf. P. Magna, “Dalla perfezione alla integrazione”, *Tredimensioni* 3, 2006, pp.56-58; A. Cencini, “Formazione: parola magica”, *Tredimensioni* 1, 2004, pp.286-288.

18) Francesco, *Discorso alla Plenaria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3 ottobre 2014): *L'Osservatore Romano*, 226(4 ottobre 2014), 8.

19) 「현대의 사제 양성」, 12항.

20)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2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위원회 후속 권고 「봉헌 생활」, 1996, 65항.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사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한 사제가 온전히 사제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 양성을 ‘그리스도 찾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라는 전체적인 통합 과정으로 보고 이를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²²⁾

2.4.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

오늘날, 좋은 사제상의 모델을 잘 보여 주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됩시다”²³⁾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지향하는 사제상을 표현하신 바 있다. 그리고 교황청 성직자성은 이와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향을 따라, 2016년 12월 「사제 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이라는 제목을 붙여 개정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을 발표하였다.

1983년의 새 교회법전에 맞추어 1970년에 최초로 발표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의 각주를 수정하는 정도였던 1985년의 개정과 달리, 이번 개정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과 베네딕토 16세의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사제 양성에 관련된 교황청 부서의 여러 문서들과 국가별 지침까지 참고하여 통합적인 지침으로 마련된 것이다.²⁴⁾

22)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34항.

23) Cf. “Siate pastori con l’odore delle pecore.”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로마 주교로서는 처음으로 교구 사제들과 함께한 2013년 성유 축성 미사 강론 중에 말씀하신 것이다. Cf. “SANTA MESSA DEL CRISM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Vatican, 2017.8.31.,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

24)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은 서론을 통해 해당 지침이 이전 교황들의 가르침과 교황청 부서들의 문헌, 국가별 지침을 참고하여 편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Cf. Congregation for the Clergy, “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8 December 2016).

특히 이 「사제 성소의 선물: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은 하나의 온전하고 연속적인 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단계, 즉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4.1. 초기 양성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마르 3,13~15).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성소를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신 후, 그들을 파견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성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지실 것을 요구하신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교리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셨고 또한 당신 자신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 증언되기를 원하셨다.²⁵⁾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초기 양성이란 교회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사제직으로 이끄는 훈련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초기 양성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제직에 있어서 초기 양성이란 사제직 지망자가 필수적인 부분인 예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제품을 받는 과정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교육 과정에는 신학생이 사제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²⁶⁾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와 같이 초기 양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지 장소나 물질적인 공간이기 이전에, 영적인 공간이자 영적 여정의 길로 사제 형성 과정이 더욱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25)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26)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5항.

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사제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자 모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노드 교부들도 파견 메시지에서 사제 후보자 양성의 본래의 합당한 의미를 즉시 깊이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²⁷⁾ “복음의 학교인 신학교에서 사는 것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²⁸⁾

즉, “신학교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선교하는 제자들, 양들 가운데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가져다주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제는 늘 자신을 끊임없이 통합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여정에 있는 제자로 여겨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²⁹⁾ 그리하기에 신학교는 신학생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위한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그들이 성령의 활동에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양성의 목적은 사제의 마음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2.4.2. 지속 양성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1티모 4,14-16).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오에게 한 이 말씀은 사제들의 지속 양성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제들의 지속 양성 속에 담긴 모든 진리와 독창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모

27)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28) Giovanni Paolo II, *Messaggio dei padri sinodali al popolo di Dio*(28 ottobre 1990), IV l. c.

29)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6-17쪽.

30) 참조: 같은 책, 55항.

든 사제들은 서품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무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지속 양성의 의무를 부여받았다.³¹⁾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늘 자신을 끊임없이 통합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여정에 있는 제자로 여겨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³²⁾ 즉 “‘자기 자신을 양성해 나가는 역량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이러한 ‘자기 양성’의 개념은 또한 사제의 평생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간과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평생을 양성자의 지도에 따라 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제 스스로 자신의 삶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제 양성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양성된 사제는 자신의 실존적 삶에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대사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³³⁾ 이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 역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원자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양성에 필요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양성은 (사제 양성조차도)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자유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³⁴⁾

2.5.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관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서 「성직자 양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83년 교회법전에 따라 신학교는 ‘성직자 양성’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신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확고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평생 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³⁵⁾

31)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0항.

32)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33)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127~128쪽

34) 「현대의 사제 양성」, 69항.

따라서 지속 양성 역시 초기 양성이라 할 수 있는 신학교 교육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또한 신학교 교육과 결코 단절되지 않은 가운데, 적응과 쇄신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동안 양성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서품을 받기 전의 교육과 받은 후의 교육이 서로 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깨닫고 눈여겨보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혹 이 두 가지 교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사목 활동과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제들이 형제적 친교를 이루는 데 심각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이라는 중요한 양성의 맥락 안에서, 사제의 삶이 부르심에 응답한 개인과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때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양성은 그러한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도움이지, 그 사제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는 지속 양성은 아닌 것이다.”³⁷⁾

또한 지속 양성을 신학교의 초기 양성에 관한 문화적·영적 사항에 대한 단순한 갱신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잘못된 것이다. 사실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는 대신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신학교에서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지속 양성의 필요성과 장점과 정신에 대해서는 물론 지속 양성을 잘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미래의 사제들이 지속 양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하는 것이다.”³⁸⁾

지속 양성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사목 기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소위 “직업” 교육이 되어서는 안

35)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 교서,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 2~3항.

36)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37)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127~128쪽

38)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됩니다. 지속 양성은 사제 양성의 모든 측면들(인성, 영성, 지성, 사목적 측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그러한 측면들이 목자로서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더욱 밀접하고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완벽하게 지속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³⁹⁾

이처럼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은 하나의 실재의 두 측면이다. 이것은 끝이 없는 교육으로서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이 각자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의 차원으로서 초기 양성의 한 부분인 예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의 말처럼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는 대신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초기 양성에서의 예비 과정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초기 양성을 크게 예비 과정, 철학 과정 또는 제자 과정, 신학 과정 또는 동화 과정, 사목 과정 또는 성소통합 과정의 4개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⁴¹⁾ 그것은 이 연속적인 단계들을 거쳐 나갈 때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제 성소의 선물」에 나타나는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과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1~2년 정도의 성소 예비 식별 과정으로,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의 길과 다른 삶의 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대신학교 지

39)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40) Cf: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GENERALE STRAORDINARIA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3 NOVEMBRE 2014.

41) 「사제 성소의 선물」, 57항

원자들의 입문·준비 과정이라고 서술되어 있다.⁴²⁾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예비 과정」(*Il Periodo Propedeutico*)에서도 이 예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신학교 지원자들의 인성적, 영적, 지성적 준비에 전념하는 이러한 특별한 준비 기간은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참으로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우 성직자 양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⁴³⁾

3.1. 예비 과정의 목적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은 이미 1980년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예비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변화는 철학·신학 6년 과정의 첫 학기에 포함된 입문 과정에서 신학교 생활과 사제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관심이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신학교 지원자의 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성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성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⁴⁴⁾

이처럼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입학 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학업 과정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예비 과정을 통해 영성 생활을 위한 공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인간적 성장을 위한 자기 인식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소자는 자신을 부르시는 성부와, 자신을 동화시키시는 성자와, 기도와 말씀 경청, 성찬례 참여, 침묵 가운데 하는 성체 조배를 통하여 자신을 길러 주시는 성령과 사랑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자들은 예비 과정 동안 성사 생활, 성무일도

42)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3)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Documento informativo, *Il Periodo Propedeutico* (Roma 10 maggio 1998), 3.

44) *Ibid.*, 3.1.

45)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8항.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친숙함, 침묵, 마음 기도, 영적 독서를 통하여 영성 생활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당 활동과 자선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 희생의 원동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⁴⁶⁾

3.2. 예비 과정의 방향과 형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이러한 예비 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과정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할 수 있다면 예비 과정이 실행되는 고유한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고유한 장소로서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에는 예비 과정의 한 형태로서 ‘성소 생활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소 생활 공동체’(residential vocational communities)는 신학교 입학에 위한 성소 식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예비 신학교’로서 여기에는 적절히 교육받은 사제들이 상주하며 ‘생활 규칙’을 제시한다. 이 생활 규칙은 형제적 생활, 개인 공부, 말씀 나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성찬례 거행과 영성 지도 등으로 구성된다.⁴⁸⁾

이러한 ‘성소 생활 공동체’에 대해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출판한 책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에서는 예비 과정의 한 형태로서 바람직한 ‘성소 생활 공동체’의 몇 가지 형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따라서 ‘성소 생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a) 성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의 토대로서 교구에 배치된 소신학교는 다른 모든 계획들에 영감을 주고 참조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성소 사목의 환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b) 성소 지도센터와 같은 유형의 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교가 위

46)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7) 같은 책, 60항

48)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8항.

입한 사제와 함께 살고, 소신학교에 의해 영감을 받은 정확한 양성 계획을 가진 작고 상당히 영구적인 청소년 공동체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거나 (개인적, 가족적 또는 단순한 학구적 이유로) 적절한 선택을 결정할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간 동안 참가하여 지낼 수 있다.

c) 성소자 그룹 모임, 즉 사제 성소를 위한 정확한 연구 및 양성 목적을 위해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젊은이들의 그룹을 말한다. 이 그룹 또한 주교가 위임한 사제의 지속적인 참석과 지켜야 할 양성 계획이 보장되어야 한다.

d) 긍정적인 그리스도교 및 교회 분위기를 달성하고 사제 성소를 제안하고 수반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여러 형태의 가톨릭 학교 기관도 가능하다.⁴⁹⁾

4. 예비 과정으로서의 소신학교

이러한 ‘성소 생활 공동체’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소신학교이다. 소신학교는 지역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에 가족과 본당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들의 사제 성소의 검증과 성숙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청소년 공동체이다.⁵⁰⁾

교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성소 배양을 위하여 인문 및 과학 교육과 함께 특별 종교 교육을 전수하도록 마련된 소신학교들 또는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존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구장 주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소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학원의 설립을 도모하여야 한다.”⁵¹⁾

이러한 소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9) CEI,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12 luglio 1972), 348.

50) Cf.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Ratio Fundamental Institutionis Sacerdotalis, (19 marzo 1985), 11.

51) 『교회법』, 제234 1항.

대신학교의 교육 목적대로, 그리고 독특한 교육 구조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제직 지원자들이 대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얼마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학교 지원자들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앙에 관한 가르침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부합되는 생활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신앙을 찾으려는 노력을 자기 지역 교구의 관습에 맞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⁵²⁾

4.1. 소신학교의 양성과 목적

소신학교의 양성은 다음과 같다. “소신학생들은 장상들의 아버지다운 지도와 부모들의 적절한 협조 밑에서, 성장기의 연령, 정신, 발달에 알맞고 건전한 심리 규범에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며, 인간 사물의 경험과 더불어 자기 가정과의 관계도 무시하지 말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음에 규정할 대신학교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소신학교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한, 소신학교에도 적용하여야 하겠다. 소신학생들이 이수하는 학업은, 그들이 다른 생활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아무 불편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⁵³⁾

따라서 “성소의 씨앗을 싹트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소신학교에서는 특별한 종교 교육과 무엇보다 적절한 영성 지도로써, 학생들이 고귀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교육하여야 한다.”⁵⁴⁾ 또한 소신학교는 지역 교회의 성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의 유기적 계획의 일부이며, 그 계획은 방법이자 도구이며, 사춘기 이전부터 성숙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리듬을 존중, 다양한 단계를 수반하는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성소 여정의 일부이다.⁵⁵⁾ “이렇게 하여 청소년들은 그들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자신의 나이에 맞게 발전시킨다.”

52) 「현대의 사제 양성」, 62항.

53)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3항.

54) 같은 책, 3항.

55) Cf. CEI,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350.

4.2. 소신학교의 양성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이러한 소신학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지금 이 시대의 가족과 학교의 상황은 현대 사회의 상황이 가진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성소의 특정한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교육 형태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그동안 많은 지역의 상황이 변하게 된 부분도 소신학교 제도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과 기본 교육이,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때로는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인 경우라 할지라도, 신학교의 생활 방식과 사제 양성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과는 너무도 크게 불일치하고 있다. 물론 대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시기로서 소신학교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러한 준비 작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그 주된 목표가 무엇이나 — 성소를 판별하기 위한 영성 교육에 주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적 교육과 문화 교육에 주력해야 하느냐 —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각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또한 각 지역과 각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격한 다양성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⁵⁷⁾

4.3. 소신학교의 양성의 도전과 전망

하지만 소신학교는 이러한 가능성의 한계와 참여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성소 사목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탁월한 위치를 유지하는 성소 공동체이다.⁵⁸⁾ 특히

56) Cf. *Ibid.*, 351.

57)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62항.

58) Cf. CEI,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351.

이 나이 때의 성소자들이 상급자, 부모, 교구 공동체,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정과 외부 세계와의 적절한 접촉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와 인간 생활의 주요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가족 및 또래들과의 적절하고 필요한 관계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진 정서적 삶과 관련하여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⁵⁹⁾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자신의 나이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소신학교의 목적이기도 하다.”⁶⁰⁾

4.4.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예비 신학생 모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78년 춘계 회의를 통해 소신학교의 존재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고 그에 따라 성신고등학교의 폐교를 합의하였다. 폐교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⁶¹⁾ 첫째, 성신고등학교의 지원자 감소이다. 둘째, 재학생의 교육 수준이 고르지 못해 중도 탈락자가 늘어났다. 셋째, 대입 예비고사 불합격률의 증가와 그로 인해 대신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숫자가 증가했다. 넷째, 소신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다섯째, 가정이나 본당을 중심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형태로 성소자를 확보하고 키울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소신학교 폐교 이후 예비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많은 교구들은 예비 신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59) Cf.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2.

60) 「사제 성소의 선물」, 18항

61) 참조: 이원순, 『소신학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38-242쪽.

4.4.1. 예비 신학생 모임의 정의

예비 신학생 모임이란, “청소년 신자들에게서 성소의 씨앗을 찾아내서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그들의 성소가 더욱 증진되도록 본당 사제가 특별히 지도하며 또한 본당의 신자들과 가정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소자 양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⁶²⁾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과정에서 양성자가 탄탄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제공하고 대신학교 지원자들을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⁶³⁾

따라서 이러한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교회는 소신학교 제도와는 다르게 우선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권장하였고, 교회와 신학교는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청소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예비 신학생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 제도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결국 이것은 소신학교 폐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⁶⁴⁾ 특별히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예비 과정」에서는 한국의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에는 정부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이 거주 지역의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상 소신학교 제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준비 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주교들은 학생들이 대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예비 신학생 모임이라는 병행 훈련 과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성소 책임자와 각 본당 신부의 책임

62) 같은 책, 241쪽.

63) 「사제 성소의 선물」, 60항

64) 박문수,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사제 성소 전망과 성소 사목의 구성요인』, 서울대학교 성소국, 253쪽.

에 맡겨져 있는 조직된 준비 기간으로, 젊은이들이 기도의 입문과 성사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전례와 교리 교육과 동시에 학생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학 입학에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각자의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된다.⁶⁵⁾

4.4.2. 예비 신학생 모임의 목적과 효과

사제 성소는 사춘기 또는 청년기 초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조차도 하느님의 부르심, 즉 사제 성소를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는 이렇듯 한번 뿌려진 성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서 결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비 신학생 모임은 성소자들이 건전한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다양한 양성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동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⁶⁶⁾

그러므로 예비 신학생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성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된다. 둘째,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의 만남이 큰 위로가 된다. 셋째,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반드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소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한 인간으로 성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다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인간 교육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여섯째, 예비 신학생 모임이 결국에는 장래의 신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된다.”⁶⁷⁾

65)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Il Periodo Propedeutico, 2.2.

66) 참조: 김자문, 『성소 계발』, 가톨릭출판사, 1998, 97쪽.

67) 참조: 같은 책, 97-98쪽.

4.4.3. 서울대교구 예비 신학생 모임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교구의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978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소신학교의 폐교가 결정되면서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8년 7월부터 사목국 주관하에 고등부 1, 2, 3학년으로 구성된 예비 신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9년에는 중등부 3개 반이 새로이 시작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일반부까지 구성됨으로써 예비 신학생 모임은 총 7개 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예비 신학생 모임의 운영은 1978년 이후 각 학년별 담임 수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85년에 담임 부제가 임명됨으로서 공동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은 매년 2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첫 모임으로서 시작되어 각 학년별 특성에 맞게 매월 1회의 모임으로 진행된다.⁶⁸⁾

실제로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은 분명한 학교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모임에 그치는 것도 아니지만, 예비 신학생의 성소를 심화시키고, 분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⁶⁹⁾는 사실은 최근에는 비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한동안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의 입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5.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한 제안

사제 성소를 증진할 의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의 몫이며,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생활로 성소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가정은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생활하면서 마치 예비 신학교와 같이 되어야 하며, 본당은 풍요로운 삶으로 젊은이들을

68) 같은 책, 96쪽.

69) 안승태,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예비 신학생 모임운영의 실제와 발전 방안』, 서울대교구 성소국, 219쪽.

초대하여 그들을 참여시키면서 성소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제는 성소 증진에서 사도직 열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신들의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즐거운 생활로 모범을 보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제직으로 이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교들도 성소 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활동에 힘써야 하며,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고 판단된 젊은이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한다.⁷⁰⁾ 따라서 사제 양성의 네 가지 분야, 즉 인간 양성, 영성 양성, 지적 양성, 사목 양성을 예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 본당, 교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5.1.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의 역할

사제 성소 양성의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정 하나의 ‘가정 교회’(「교회현장」, 11항)로서 성소자들이 나오기에 알맞은 여건들을 늘 제공해 왔으며 또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위상이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사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들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선물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정 자체가 ‘이른바 최초의 신학교’(「사제 양성 교령」, 2항)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⁷¹⁾

따라서 가정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달하는 첫 번째 공동체이다. 특히 인간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삶과 가르침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각인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70) 참조: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71) 「현대의 사제 양성」, 41항.

삶을 살아가며 이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신성함, 가정 생활의 조화, 삶의 일상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신앙의 정신, 다른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와 같이,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⁷²⁾

뿐만 아니라 사제 성소를 위한 양성 측면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가정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증명하듯 대부분의 사제 성소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며 미래의 교회 성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일관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범과 복음적 덕행의 실천을 통한 온전한 자기증여에 대한 열망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⁷³⁾ 따라서 사제 성소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정과 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 시작되는 성소는 부모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가톨릭 교육성의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정 사목과 성소 사목 사이에는 공통된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혼인성사에 뿌리를 둔 신앙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더 잘 인식하도록 하여, 사제 성소를 발견하게 하는 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조건이 가정 안에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⁷⁴⁾

둘째, 부모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 신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들의 품위와 사명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책임과 자녀들이 하느님 신비를 점차적으로 발견하여 그분과의 대

7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02.4.21.), 2-3쪽.

73)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3항.

74) 같은 책, 14항.

화를 하도록 인도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⁷⁵⁾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복음을 읽거나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고 기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정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교 가정을 위한 다양한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가정 교회의 기도의 증대한 목표는 어린이들을 전체 교회의 전례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데 봉사하고, 전례 기도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그것을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는 별도로, 다른 일정한 형태의 기도, 예컨대 하느님 말씀의 봉독과 묵상, 성사 배령의 준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동정 마리아에 대한 각종의 공경, 식사 전후의 기도, 대중 신심의 준수 등이 분명히 권장될 것입니다.⁷⁶⁾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교 기도의 정점은 성찬례”이므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미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주일미사에 참석하여 자녀가 미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⁷⁷⁾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사제 성소의 시작이자

75)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60항.

76) 같은 책, 61항.

77)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사제직 후보자들의 영성 양성에 있어서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제직 지원자들이 미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적인 마음 자세들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봉헌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사제직 지원자들은 자기 자신이 준비한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성찬의 제물을 더욱 잘 결합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48항).

완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사에서 만나는 성찬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본당의 역할

본당은 그리스도교 성소에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제직의 이상이 제시되는 훌륭한 장소이며, 성소가 싹트고 성숙해지는데 비옥한 땅이다. 그러므로 사제직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 양성에 소중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요람이기도 한 것이다.⁷⁸⁾ 특히 청소년 시기의 사제 성소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특별히 주일학교와 본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통계 자료와 몇 가지 사회학 연구들은, 새로운 복음화 노력이 본당, 단체, 교회 공동체들과 운동들 안에서 촉진될 때,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교회의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강조한다.”⁷⁹⁾ 또한 본당 사목자인 사제들은 성소 사목을 지도하는 주체들이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미사를 거행하고 형제애 안에서 신자들과의 일치를 보여 줌으로써 사제는 신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성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영감을 주는 힘이 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소주일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제 성소는 말과 본보기와 삶 전체로 전수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사제들과의 만남에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소에 충실한 모든 사제와 봉헌 생활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널리 전파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 성화 소명에 응답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이미 ‘예!’라고 응답한 이들의 모범이 없다면 우리는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를 증진할 수 없고 더 효과적인 성소 식별도 못 할 것입니다.⁸⁰⁾

78)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4항.

79) 같은 책, 3항.

그러므로 본당 신부는 본당의 사제직을 희망하는 성소자가 미사와 기도를 경험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미사는 사제 성소 증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찬례를 거행하는 사제들의 충실함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제직 성소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⁸¹⁾ 그리고 미사 전례뿐만 아니라 본당의 성소자를 찾고 발전시키려는 본당 신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물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짜임새 있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성소와 사명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교회 안에서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면 줄수록, 젊은이들은 사제 성소와 사명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²⁾

5.3.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과 본당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예비 과정을 강화하여 양성의 네 가지 영역이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본당이 속해 있는 교구는 모든 가정과 본당의 사제 성소 증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회는 사제직 성소자들이 탄생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⁸³⁾

특히 주교들은 성소 사목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교는 성소 사목이 항상 일반 사목의 범주 속에 있으면서, 일반 사목과 완전히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성소 사목과 일반 사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해 주고 그것들을

80) 베네딕토 16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10.4.25).

8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31항.

82)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4항.

83)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1항.

조정해 주는 것도 주교의 임무이기도 하다.”⁸⁴⁾ 따라서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구의 역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구는 인성, 영성, 지성, 사목의 네 가지 분야가 잘 양성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인 예비 과정에 있는 성소자들의 경우, 인성과 영성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교구 내의 성소를 장려하기 위해 사제가 되기로 결심은 했지만 아직 대신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한 적절한 양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다양한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⁸⁵⁾

둘째, 교구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제 성소를 담당하는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제를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제 성소의 예비 과정에서 성소자들로 하여금 사제직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 성소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성소의 싹이 트면 그것을 성장하게 해 주면서, 양성자와 성소자 사이의 진실되고 효과적인 관계를 통해 성소 식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⁸⁶⁾

사제직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이 진정 전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영성적, 인간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모두 진정으로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과 주님께 전적으로 봉헌한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한다.⁸⁷⁾

셋째, 각 교구에는 성소를 전담하는 성소국을 설치해야 한다.⁸⁸⁾

84) 같은 책, 41항.

85)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9항.

86) 참조: 같은 책, 9항.

87)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88) 교황청은 이미 70년 전에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해 교황청과 지역 교회 간의 협

이러한 성소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를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 사제들이 성소를 식별하고 돌봄으로써 성소를 증진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 사목, 교리 교육,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구 단체들과 협력하여 젊은이들의 신앙과 정서적, 심리적 발전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보조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⁸⁹⁾

6. 결론

사제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므로, 사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는 쉽게 인식할 수 없다. 특히, 세속화와 개인주의로 인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제들과 성소자들이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임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본질상 부르심인 교회는 동시에 성소자들을 탄생시키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소를 밝히 보여주고, 그 성소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사’이자 ‘표지’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⁹⁰⁾

특히, 더 세심한 식별력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의 사제 성소에 대해서도 교회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본 논문에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것처럼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먼

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교황청 사제 성소국’을 세웠다(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3항).

89)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3항.

90) 「현대의 사제 양성」, 35항.

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도 지역 교회의 문화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예비 과정이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앞서 다루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예비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신학교 폐교 이후 예비 신학생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예비 신학생들이 기도와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쉽고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으며 서울대교구는 이러한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해 왔다. 이는 한국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역 교회의 상황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무조건 사제 성소의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교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화, 경제 연구를 통해 교회 밖의 다른 조직과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가족, 본당, 교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Ecclesia)는 참으로 ‘소집’,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성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교회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⁹¹⁾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을 묵상하고, 다가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바지할 귀중한 보물인 사제 성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사제 성소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고, 사제 성소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

91)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34항.

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이고 싶다.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추수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 주시길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세대들한테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용감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일깨워 주고, 그들이 진정 하느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물론, 사제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⁹²⁾

92) 같은 책, 2항.

[참고 문헌]

1. 교회 공식 문헌

-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9.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2002.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2002.
- _____,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2002.
-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
- _____,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 _____,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 _____, 세계주교대위원회 후속 권고 「봉헌 생활」, 1996.
-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의교서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 2013).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양성의 기본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 2018.
-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2018.
- 교황청 교육성,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2012.
-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Ratio Fundamental Institutionis Sacerdotalis(19 marzo 1985).
- _____, Documento informativo, Il Periodo Propeutico(10 maggio 1998).
- CEI,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12 luglio 1972).
- _____,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1973.

2. 교황의 발언

- Francesco, Discorso alla Plenaria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3 ottobre 2014): L'Osservatore Romano, 226(4 ottobre 2014), 8.
- _____, “Santa messa del crism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Vatican, 2017.8.31.,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

Giovanni Paolo II, Messaggio dei padri sinodali al popolo di Dio(28 ottobre 1990),
IV l. c.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generale
straordinaria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3 novembre 2014.

요한 바오로 2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02.4.21.).

베네딕토 16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10.4.25.).

3. 단행본

RULLA, L.,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1*, Edizioni Dehoniane Bologna,
1997.

Magna, P., “Dalla perfezione alla integrazione”, *Tredimensioni 3*, Editrice Ancora,
2006.

Cencini, A., “Formazione: parola magica”, *Tredimensioni 1*, Editrice Ancora, 2004.

이원순, 『소신학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박문수, 「사제 성소 전망과 성소 사목의 구성요인」,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교구 성소국, 2008.

김자문, 『성소 계발』, 가톨릭출판사, 1998.

안승태, 「예비 신학생 모임운영의 실제와 발전 방안」,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교구 성소국, 2008.

4. 정기간행물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 통계 2022 분석보고서』, 4
쪽.

방효익, 「교구 사제를 위한 영적 양성의 필요성: 현대의 사제 양성을 중심
으로」, 『신학전망』 195(2016), 광주가톨릭대학교, 69~121쪽.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27~128쪽.

국문초록

한국 천주교회는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러한 교세의 증가에 비해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로 인해 인성과 영성을 돌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인성과 영성에 있어서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사제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신학생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학생들의 숫자가 준다고 하여,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에 대한 준비 없이 입학할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나 학생들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예비 과정으로서 소신학교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폐교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성소 생활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 역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른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대신학교 입학 전 초기 과정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인성과 영성 양성을 포함한 통합적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어 보았고 또한 이러한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서 가정의 역할과 그러한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으로서 본당과 교구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성소 증진을 위해 가장 당연시되고 기본이 되는 역할에 대한 제안이지만 이를 통해 가정과 본당 그리고 교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교회의 성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 주제어: 초기 양성, 예비 과정, 소신학교, 예비 신학생 모임, 사제 양성.